

섬유원료 수급 "난항"

TPA · EG · 카프로락탐 등 ... 가격도 급등

섬유 생산기업들이 세계적인 원료가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기업에 따르면, 95년 들어 TPA, EG, 카프로락탐, AN모노머 등 주요 화섬원료를 비롯, 원면·원모 등 섬유원료 국제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관련 원사의 로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화섬사 등 일부 품목은 구독난까지 빚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.

화섬의 경우 폴리에스터 원료인 TPA 국제가격이 94년 1/4분기에 톤당 680달러에 불과했으나 95년에는 920~940달러까지 치솟고 있어 일부 화섬기업들이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TPA와 함께 폴리에스터 원료인 EG는 국내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데 국제가격이 54%나 오른 톤당 60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.

더구나 PET원사 생산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인상 추세에 따라 EG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겨 상당한 원가부담도 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한편, 95년 EG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, 대만, 미국 등 PET원사 생산기업의 대규모 증설로 EG수요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국내 및 해외에서의 EG생산량은 9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.

또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은 94년대비 35% 상승한 톤당 155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, 아크릴 원료인 AN모노머는 1100달러로 무려 83%까지 폭등하는 등 총체적 원료난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원료난으로 PET 생산기업들의 평균 정상조업률이 94년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이 종설이 완료되는 95년 하반기 이후부터나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의 고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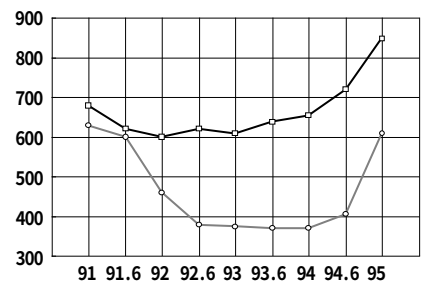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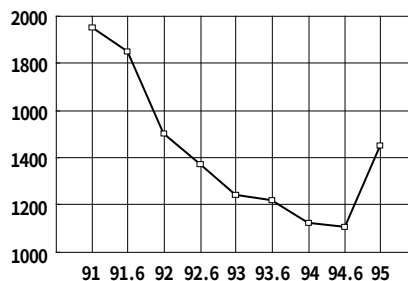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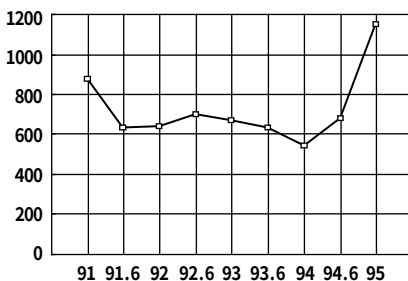
국내 섬유원료 가격추이

(단위 : 달러/MT)

A N

CAPROLACTAM

TPA · EG



<화학저널 1995/4/3>